

혼자 할 수 없는 일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봉호

여명학교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고생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여명학교 학생들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련은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감독 겸 배우
차인표

여명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연기자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힘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겨울의 야외 밤샘 촬영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영하 24도를 기록한 어느 겨울밤. 저는 제천에서 사극 촬영으로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강추위에 하늘도 땅도 얼굴도 꽁꽁 얼어버린 그날 밤, 견딜 수 없어 저는 촬영을 포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스탭들이 보였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조명기를 옮기는 조명 막내, 카메라에 서린 얼음을 맨손으로 닦아내던 카메라 스탭, 얼음으로 변한 생수를 녹이는 소품 막내 등 그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자신들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을 보며 그들은 또 저를 보며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가장 상징적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후원자들이 모입니다. 남한사회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명학교에서 체험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오산학교! 통일시대 여명학교!



교장 조명숙

저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꿈을 꾸다 93년도에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시작하면서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신혼여행 겸 중국에 갔다가 탈북동포들을 만나서 돕다 귀국 후 여명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명학교에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명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여명 학생들을 맡기시려고 교사의 꿈을 갖게 하셨고,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게 하셨으며, 탈북동포들과 함께 국경을 넘으며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사람도 사랑도 믿지 않는 여명학교의 학생들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허락된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및 사감들과 더불어 학생들을 사회통합과 통일에 기여하는 “겸손한 인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여명학교에서 사랑받는 학생들로 인하여 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져 어려운 중에서도 후원해 주신 분들께서 보람을 느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곳까지 와준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명학교

우 04630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99
T 02-888-1673~4 F 02-888-1676

www.ymschool.org
facebook.com/ymschool
admin@ymschool.org



여명학교는 서울시 유일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학력 인정
대안학교입니다.

사회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여명학교

후원문의
02-830-3514
02-3789-1673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출생자녀들은 남한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출생자녀들이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꾸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곳이 여명학교입니다.

공부, 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북한과 중국,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선행학습의 차이로 어려워합니다.

인간관계, 사회적응의 어려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 일반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할까봐 북한출신임을 숨깁니다.
- 한국말을 모른다고 친구들이 놀립니다. (중국출생자녀)

심신외상 “과거의 상처들로 힘들어요”



- 북한이탈청소년은 정상범위를 넘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 중국출생자녀들은 영유아기에 어머니와의 이별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명학교는 2004년 설립한
북한이탈청소녀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녀와 북한이탈주민자녀들의
남한사회적응을 도모하고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여명학교는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표시는 소득공제를 위한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나는 여명학교의 후원자로 참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후원금액

☐ 약정금액 ☐ 1만 원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기타(원)

후원금 자동납부 신청(출금일 매월 ☐ 15일 ☐ 25일)

☐ CMS 은행명
자동이체 계좌번호
☐ 신용카드 카드사 유효기간 년 월
카드번호

후원자와 예금주(카드주)가 다른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예금주(카드주) 이름: 생년월일: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1-083896 예금주 사단법인 여명
KEB 하나은행 110-890107-95104(건축후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여명학교를 후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후원인 (서명)

* 사단법인 여명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여명학교는 후원자님의 수집된 개인정보를 후원자님의 수집된 개인정보를 후원 목적에 한해 활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에 사진을 찍어 이메일(admin@ymschool.org)로 전송 또는 전화 (02-830-3514)로 정기후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로

교육
철학



회복

인간 본연의 존엄한 가치를 찾는 것

이해

다양성의 인정, 상호존중의 의미

사랑

타인과 관계를 맺는 태도의 핵심

역할

교육



학생 중심의
맞춤교육

보호



기숙사
지원

치유



심신의 회복과
치료지원

인재상

하나님을 경외하고(신앙)

사람을 사랑하며(인성)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실력을 갖춘)

“겸손한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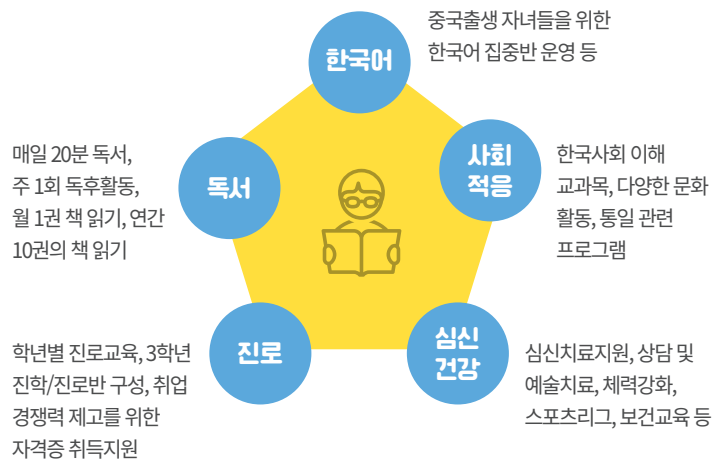
독일통일에서 배웁니다.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독일연방 11대 대통령

2015년 동독 출신의 가우크 독일대통령이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조언하였습니다. “서독에서는 통일 전 많은 탈동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따로 교육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독 적응에 장점이 되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기에 동독사람들을 배려할 시간이 부족했고, 서독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지역민들은 지금까지도 서운함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통일 전에 탈동자들을 통해 동독사람들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내용과 시스템들을 만들고,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활용하였더라면 독일은 더 빨리 통합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탈북동포들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쓰일 수 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여명학교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학생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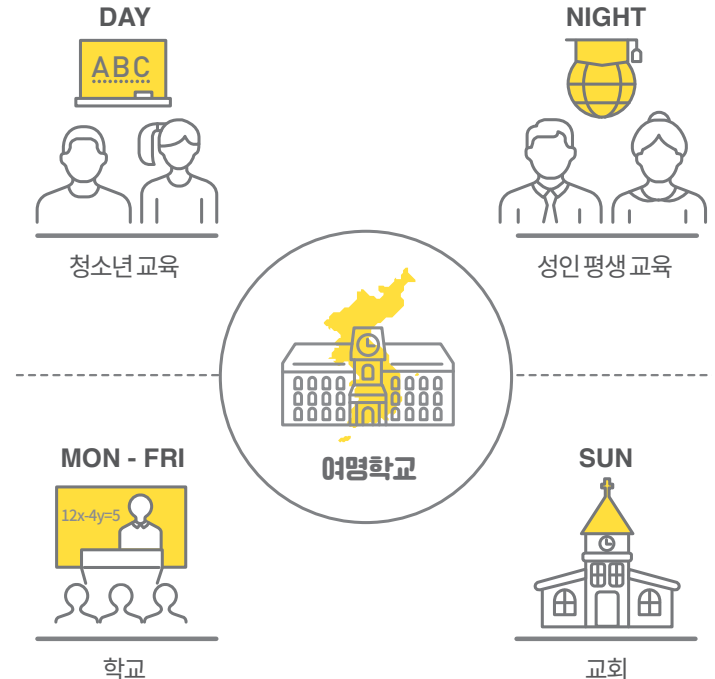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최광혁(7회 졸업생)



본교를 졸업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명학교 교사 이심일(7회 졸업생)

여명학교의 사명



통일 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적합한 남북통합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